

결혼이민자 가정 남편과 부인의 가계관리 태도 비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the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the family financial manag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ly married husbands and wives in Chunlabuk-do

김정훈**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 전공

Kim, Jung Hoon

College of Human Environment,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the attitudes toward the family financial manag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ly married husbands and wives in Chunlabuk-do in order to search the strong and healthy family. As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s were found; Females were perceived that family finance was difficult than males and their wants to job was strong. Female's attitudes toward family financial management was more positive than males'. Males felt very strong responsibility to family finance. The types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were differently perceived by both couples. The both couple's parental financial management of the family was different each other. Also both of couples reported the conflict with the family finances.

Key Words : chunlabuk-do, internationally married, financial management, economic living

I. 서론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호적국이 호적을 기준으로 공개한 '국제혼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는 3만 9071건으로 전체 33만 7528건의 11.6%를 차지했다. 100쌍 가운데 1쌍에 불과했던 1990년과 비교하면 16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23%, 전북 16%, 경북 15% 등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았다. 이들 국제결혼의 76%는 한국 남성과 아시아권 국가 여성의 결혼이었다(서울신문, 2007. 4.16). 한편 2006년 우리나라 농촌가정 결혼의 40%가 국제결혼이었다고 한다(국민일보, 2007년 6월 16일).

전통적으로 한국은 국제결혼의 비율이 매우 낮은 사회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는 우

리가 풀어 가야할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단일민족에서 오는 전통적 가족개념이 강한 우리에게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 부인들에 대해 알려진 데이터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특히 최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시작되면서 연구는 사회적 갈등이나 부부 갈등과 폭력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고,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제적 태도 등에 대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다.

결혼 이민자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에서 관찰이나 연구들에 의하면(신경희, 2004; 홍달아기, 채옥희, 2006)에 따르면 결혼이민 여성들의 가계 참여는 미미하며, 일부 가정에서는 결혼이민자인 아내에게 경제적 문제를 숨기거나 알리기를 원하지 않고, 이들에게 경제 관리를 맡기지 않으려하고, 가계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한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Kim, Jung Hoon, College of Human Environment, Wonkwang University, 344-2 Shinyoung-dong, Chunlabuk-do, 570-749, Korea
Tel: 063) 850-6650, Fax: 063) 850-7301
E-mail: osu@wonkwang.ac.kr

그러나 이것은 이들의 가정이 가족관계에서, 가정경제에서, 자녀 교육에서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같은 교육적,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지 않은 부인들에게 가계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책임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그것은 이들이 가계관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들의 경제관리 능력과 태도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친정 가족들에게 돈을 빼돌리거나 다른 마음을 먹고 몰래 돈을 모아 가출 할 것 같다는 등의 의심 때문이라고 한다(신경희, 2004; 홍달아기, 채옥희 2006).

그러나 이들은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계운영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국 가정에서 가계관리는 부인의 중요한 역할이다. 주부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가는 주부인 여성의 자부심과 자아감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결혼 이민자인 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계관리와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고찰

주로 농촌지역 남성들의 배우자 찾기로 시작된 우리나라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한 이래 사회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단순한 실태 보고(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2002; 박현정, 2004; 보건복지부, 2005; 이금연, 2003; 이윤애, 2004)이거나 사회 복지 및 정책적 차원에서 결혼 이민 여성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들에 관심을 가졌다(양철호 등, 2003; 이규삼, 1999; 이금연, 2003; 최금혜, 2005).

또한 가장 많은 것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갈등과 결혼 만족에 대한 연구들이었는데(모의회, 이규삼, 1999; 신경희, 2004; 안현정, 2003; 양순달, 2004; 정영덕, 2004; 홍달아기, 채옥희, 2006; 채옥희, 홍달아기, 2007), 이들 역시 가족 내 인간관계, 특히 부부 중심의 갈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들 연구들은 가정의 경제 수준이나 의사소통, 기타 경제적 요인들이 결혼 이민자 여성 및 가정의 결혼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결혼 이민자인 여성들의 결혼의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안현정, 2003; 정영덕 2004; 채옥희, 홍달아기, 2007)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 생활에서 경제생활과 이들의 경제에 대한 태도는 결혼 이민자 가정의 복지와 결혼 만족, 사회적 적응과 안정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만 있지 실제 이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III. 조사 방법 및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로서 조사는 국제결혼 부인들의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한국어와 영문을 동시에 기입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여성들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접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성들은 질문지를 면접 또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부인들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였으며, 한국어 교실 교사들에 의해 조사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문항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굳이 대답하고 싶어하지 않는 질문들에 대해 무리하게 응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써 질문 상황에 거부적이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은 면사무소,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여성 64명(74.4%), 남성 22명(25.6%)로 총 86명이 분석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과 요인 분석, one-way ANOVA(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가 이루어졌으며, 결혼이민 여성과 결혼이민자의 남편 그룹의 비교는 남편 그룹의 빈도수가 적어, 비모수통계인 Mann-Whitney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2. 경제생활 관련 태도 연구를 위한 요인분석

국제 결혼 가족의 경제생활 관련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부의 재정적 역할에 대한 태도, 소비지출 경향, 재정관련 의사소통, 재정관련 영역에 대한 만족도(Waddell, 1993), 신용(빚)에 대한 태도(김정훈, 2002), 노동과 여가에 대한 태도(Mirels & Gareet, 1971)를 측정하였다. 이들을 조사하기위한 질문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질문들을 참고하여, 일부 문항들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은 관련 문항들을 관련 문항들을 요인적재량 .45와 상대적 적재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탐험적 요인분

<표 1> 경제생활 관련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하위변수들

경제생활 관련 태도 변수	하위변수 명	하위변수의 설명력	총분산 설명력	신뢰도
소비지출 경향	감성적 지출 경향	26.44	74.54	.71
	비합리적 지출경향	26.13		
	유명, 고가품 지출 경향	21.97		
신용(빚)에 대한 태도	적극적 태도	24.52	78.78	.62
	신용은 현대 생활 양식	20.34		
	조건적 신용 이용 허용	18.45		
	신용은 지출을 위한 관리항목	15.47		
노동과 여가에 대한 태도	노동의 중요성 인식	28.23	79.0	.73
	성공과 열심	21.56		
	여가 필요성	16.43		
	과다 여가 우려	12.78		
부부의 재정적 역할에 대한 태도	남성의 경제적 책임의식	34.04	64.64	.49
	성 불평등적 경제책임의식	30.60		
재정 의사소통	재정 의사소통 갈등	36.97	64.27	.73
	배우자의 일방적 태도	27.30		
재정관련 영역에 대한 만족 수준	역할수행과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만족감	33.20	79.28	.55
	자신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만족감	24.82		
	경제생활 상태에 대한 만족감	21.26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		전체		결혼이민 여성		국제결혼 남성	
		N	(%)	N	(%)	N	(%)
성별	여자	64	(74.4)				
	남자	22	(25.6)				
종교	불교	12	(14.0)	6	(9.4)	6	(27.3)
	기독교	36	(41.9)	24	(37.5)	12	(51.5)
	천주교	14	(16.3)	12	(18.8)	2	(9.1)
	통일교	22	(16.3)	20	(31.3)	2	(9.1)
	없음	2	(2.3)	2	(3.1)		
본인연령	M(SD)	33.88	(7.64)	32.58	(7.67)	38.33	(5.76)
교육기간	M(SD)	11.47	(2.94)	11.22	(3.28)	12.09	(1.77)
국적	필리핀	28	(38.4)	26	(45.6)	2	(12.5)
	베트남	14	(19.2)	8	(14.0)	6	(37.5)
	중국	15	(20.5)	15	(26.3)	6	(37.5)
	카자흐스탄	12	(16.4)	6	(10.5)	6	(37.5)
	러시아	4	(5.5)	2	(3.5)	2	(9.1)
국적취득 여부	이미 취득	40	(48.8)	23	(37.7)	17	(19.0)
	취득 예정	42	(51.2)	38	(62.3)	4	(81.0)

Note; 무응답으로 인해 각 문항들의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는 각 문항들 응답에 대한 유효응답의 백분율임.

석을 하여, 하위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 문항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명명하였다. 추출된 하위요인들과 이들의 총분산 설명력 및 신뢰도값, 명명 하위변수들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았으며(여성 37.5%, 남성 51.5%), 여성은 통일교(37.5%), 남성은 불교(27.3%)가 그 다음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의 연령은 여성은 20대(48.8%), 남성은 40대 이

상(76.2%)이 가장 많았고,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32.58세, 남성은 38.33세였다. 교육기간은 여성은 평균 11.2년, 남성은 12.09년이었다. 조사 대상 여성들의 원국적은 필리핀이 40.0%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30.0%, 중국이 20.0% 순이었다. 이들 중 38.7%는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61.3%는 미취득 상태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결혼기간은 여성들의 응답에 의하면 4.32년으로서, 결혼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2년 이하가 35.5%, 3년 이상이 64.5%였다. 이들의 부부 사이의 연령차는 평균 10.19년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23년까지 배우자와 연령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57.4%, 자녀가 있는 부부는 42.6%로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평균 자녀수는 1.49명으로서, 우리나라 평균 0.8명보다 많았다. 이들 가

정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조금 많았으나,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확대 가족과 그 비율은 비슷하였다<표 3>.

2. 직업 분포 및 직업에 대한 생각

조사 대상 남성들의 현재 직업은 사무직이 14명(21.9%)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이 10명(15.6%)이었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블루칼라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본국에서 대부분 직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22명(26.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이 50명으로 78.1%였고, 영어 교사 등의 외국어 관련 일을 하는

<표 3> 조사 대상자들의 결혼과 가족 관련 특성

변수		전체		여성		남성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연령차	5년이하	18	(23.1)	18	(23.1)	2	(12.5)
	6년-10년	16	(20.5)	16	(20.5)	4	(25.0)
	11년-15년	32	(41.0)	32	(41.0)	8	(50.0)
	16년이상	12	(15.4)	12	(15.4)	2	(12.5)
	M(SD)	10.56	(6.2)	10.19	(6.4)	12.0	(5.3)
자녀수	없음	38	(48.1)	26	(57.4)	12	(66.7)
	있음	41	(51.9)	35	(42.6)	6	(33.3)
	평균(M/SD)	1.49	(.6)	1.51	(.61)	1.33	(.52)
가족 형태	확대가족	38	(42.7)	28	(44.4)	10	(45.5)
	핵가족	51	(57.3)	35	(55.6)	12	(54.5)
결혼기간	5년 이하	32	(41.0)	22	(35.5)	10	(62.5)
	6년-10년	18	(23.1)	18	(29.0)	6	(37.5)
	11년이상	28	(35.9)	22	(35.5)		
	M(SD)	4.13	(2.84)	4.32	(3.0)	3.38	(2.2)

Note; 무응답으로 인해 각 문항들의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는 각 문항들 응답에 대한 유효응답의 백분율임.

<표 4>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분포

변수	남편들의 직업		여성들의 본국 직업		여성들의 현재 직업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건설 노동자	12	(16.9)				
공장 근로자	7	(9.9)	2	(3.3)	2	(3.2)
노동	4	(5.6)	4	(6.7)		
교육					10	(15.9)
기술직	4	(5.6)				
자동차 기술자	8	(11.3)				
판매, 서비스직	6	(8.5)	17	(28.3)	2	(3.2)
요리사	1	(1.4)				
운전기사	2	(2.8)				
사무직	14	(19.7)	6	(1.0)		
사업	2	(2.8)				
농축산업	9	(12.7)				
전문직			10	(16.7)		
무직	2	(2.8)	21	(35.0)		
주부					49	(77.8)

Note1; 남편들의 직업은 조사대상 남성들의 본인 직업과 부인들이 응답한 남편의 직업을 합한 것임

Note2; 무응답으로 인해 각 문항들의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는 각 문항들 응답에 대한 유효응답의 백분율임.

여성들도 10명(15.6%)이었다 <표 4>.

조사 대상 여성들 중에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은 32.3%였으며, 직업을 가질 생각이 없는 여성들은 6.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93.6%가 직업을 갖고 싶어 했으며, 남성들 역시 여성이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표 5>.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가정 경제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국 가족에게 송금'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한 여성들은 6.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3%, 생활비 보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였다. 이것은 <표 6>에 나타난 고정소득 여부(고정소득 없음이 여성 45.2%, 남성 36.4%)와 월평균 소득(여성 응답, 약 110만원, 남성 응답 약 120만원)와 현재 가계 상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을 고려할 때, 여성들은 자신의 가계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직업에 대한 생각

	여성		남성	
	N	%	N	%
직업 갖기에 대한 본인(여성)의 생각($X^2=7.86$ p=0.97)				
현재 직업이 있다	20	(32.3)	6	(27.3)
현재는 없지만 갖고 싶다	38	(61.3)	14	(63.6)
가질 생각이 없다	4	(6.5)	2	(9.1)
아내의 직업 갖기에 대한 남성의 생각				
적극적으로 반대	4	(6.7)	2	(9.1)
대체로 반대하는 편	8	(13.3)	2	(9.1)
찬성도 반대도 아님	12	(20.0)	10	(45.5)
대체로 찬성	28	(46.7)	4	(18.2)
적극적으로 찬성	8	(13.3)	4	(18.2)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X^2=14.36$ p=.026)				
가족의 생계유지	7	(10.9)	2	(9.1)
자녀 교육비 충당	18	(28.1)	2	(9.1)
노후대책	16	(25.0)	2	(9.1)
생활비 보충	13	(20.3)	6	(27.3)
자기발전	4	(6.3)	4	(18.2)
본국 가족에게 송금	4	(6.3)	6	(27.3)
시간이 많아 지루해서				
기타	2	(3.1)		

Note; 무응답으로 인해 각 문항들의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는 각 문항들 응답에 대한 유효응답의 백분율임.

<표 6> 개인 경제 생활 관련 태도 경향

	전체		여성		남성		Mann-Whitney U	p
	M	(SD)	M	(SD)	M	(SD)		
소비지출 경향								
감성적 지출 경향	1.92	(.67)	1.95	(.70)	1.82	(.59)	556.00	.371
비합리적 지출경향	2.22	(.88)	2.67	(.79)	3.32	(1.26)	548.00	.587
유명, 고가품 지출 경향	1.71	(.74)	1.76	(.82)	1.59	(.48)	604.00	.701
신용(빚) 사용에 대한 태도								
적극적 태도	2.52	(1.24)	1.90	(.80)	4.15	(.51)	24.00	.000
신용은 현대 생활 양식	2.69	(1.24)	2.47	(.67)	3.27	(.89)	296.00	.000
조건적 신용 이용 허용	3.39	(.81)	1.81	(.73)	2.50	(.87)	318.00	.001
신용은 지출을 위한 관리항목	2.22	(.74)	3.19	(.52)	3.91	(.95)	306.00	.001
노동과 여가에 대한 태도								
노동의 중요성 인식	3.45	(.73)	3.11	(.59)	4.01	(.50)	126.00	.000
성공과 노력의 관련성	3.16	(.65)	3.03	(.53)	3.50	(.81)	410.00	.012
여가 필요성	3.33	(.76)	3.15	(.52)	3.79	(1.06)	380.00	.005
과다 여가 우려	2.89	(.86)	2.80	(.82)	3.09	(.92)	462.00	.274

* 변수들은 1-4점의 Likert scale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이 자신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대체로 찬성 46.7%, 적극적으로 찬성 13.3%), 실제로 남성들은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을 여성들이 생각하는 만큼 찬성하고 있지 않았다(대체로 찬성 18.2%, 적극적으로 찬성 18.2%). 이와 같은 남성들의 여성의 취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남성들이 여성의 취업을 자신의 가계에 보탬이 된다는 것보다 여성의 취업이유를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적인 개인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

1) 소비지출 경향

소비지출 경향은 하위변수인 '감성적으로 지출하는 경향', '비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경향', 그리고 '유명, 고가품 지출 경향' 모두에서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물건을 사고 후회하거나 필요없는 물건을 세일 한다고 사게 되는 경향은 남성들이 더 컸으나 감정적인 보상으로 지출을 하거나 비싼 물건을 선택하는 경향은 여성들이 더 컸다<표 6>. 그런데 감성적 지출 경향이나 유명, 고가품 지출 경향은 2점 이하(range 1-4)였지만 비합리적 지출, 특히 남성들의 비합리적 지출 경향은 3.32나 되어 남성들의 소비지출 행태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신용이나 빚에 대한 태도

신용이나 빚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M=1.81에서 M=4.15) 신용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경제생활 관련 다른 변수들에 비해 여성들과 남성들의 태도의 차가 큰 경향을 보였다. 이들 하위 변수들 모두(신용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신용 사용을 현대의 생활양식으로 인정하는 태도, 조건적으로 신용 사용을 허용하는 태도, 신용을 가계생활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생각하는 태도)에서 모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6>. 그러므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훨씬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신용의 과다 사용 문제와 연관될 수도 있을 것이며, 외국인인 여성들의 출신국들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덜 안정적이고, 신용사회로의 발전정도가 낮은 탓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들의 현재 가정의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여성들의 신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가정 경제의 불안요인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단 남성들이 신용을 인생을 즐기는 도구나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의 경향이 매우 높은 것(range 1-5 중 4.15)은 가정 경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노동과 여가에 대한 태도

노동과 여가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M=2.80에서 M=4.01), 이중 노동의 중요성 인식,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의식, 그리고 여가의 필요성에서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들이 스스로의 노동의 가치와 사회에서 이런 노력이 성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더 높았다. 또한 여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았는데<표 6>,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성격도 관련된 태도라고 보이며, 한편으로는 신용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의 외국인 여성들의 본국의 경제, 사회적 안정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아서 스스로에 의한 성공 기대감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능할 것이다.

4. 가정 경제 관련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

1) 부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태도

연구 결과, 부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하여 '남성이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남성들에게서 훨씬 컸다(남성, 4.21; 여성, 2.82). 물론 '가정 경제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불평등하게 인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들의 기대보다 가정 경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2) 부부의 재정관련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

부부 사이의 재정관련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비민주적 의사소통 경향을 보고하였는데(M=2.33에서 M=2.40; range 1-4), 남녀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의사소통에서의 갈등을 보다 높이 보고하였으며, 그 갈등 정도는 상당히 높았다(range 1-5 중 2.66)<표 7>. 배우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경향은 약 2.3점으로 높았다.

이와 같이 부부 모두가 가정의 재정에 대해 의사소통에서 갈등을 느끼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있는 일이며, 가정생활의 조화와 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

<표 7> 가정경제 생활 관련 태도 경향

	전체		여성		남성		Mann-Whitney U p
	M	(SD)	M	(SD)	M	(SD)	
부부의 재정적 역할 인식							
남성의 경제적 책임의식	3.19	(2.38)	2.82	(.79)	4.21	(.43)	602.00
성불평등적 경제책임의식	2.90	(.75)	2.89	(.67)	2.91	(.94)	606.00
재정 의사소통							
재정의사소통 갈등	2.40	(.81)	2.30	(.73)	2.66	(.97)	498.00
배우자의 일방적 태도	2.33	(.80)	2.32	(.85)	2.33	(.67)	634.00
재정관련 영역에 대한 만족 수준							
역할 수행과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만족감	2.86	(.99)	2.67	(.79)	3.32	(1.26)	400.00 .023
자신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만족감	3.18	(.76)	3.11	(.69)	3.36	(.90)	496.00
경제생활 상태에 대한 만족감	2.55	(.80)	2.69	(.74)	2.23	(.86)	434.00 .062

* 변수들은 1-4점의 Likert scale에 의해 측정되었다.

<표 8> 조사 대상자의 가계상태

		전체	여성	남성
		N(%)	N(%)	N(%)
고정 수입 여부	있다	48(53.3)	34(54.8)	14(63.6)
	없다	36(40.0)	28(45.2)	8(36.4)
월평균 소득액(M(SD))		1,344,444원 (501,679원)	1,350,000원 (547,722원)	1,333,333원 (416,333원)
현재 가계 상태에 대한 인식		$\chi^2 = 8.80$ p = .07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22.5)	16(26.7)	2(10.0)
필수적인 지출만 할 수 있다		14(17.5)	12(20.0)	2(10.0)
조금만 절약하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다		28(35.0)	18(30.0)	10(50.0)
저축은 못하지만 생활에는 충분하다		14(17.5)	8(13.3)	6(30.0)
생활에 충분하며, 저축도 할 수 있다		6(7.5)	6(10.0)	

Note; 무응답으로 인해 각 문항들의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는 각 문항들 응답에 대한 유효응답의 백분율임.

이 된다. 특히 이들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는 가정 경제 관리에 대한 문화에서 그 차이가 일반 가정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갈등정도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편들이 부인들보다 갈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 태도에 부인이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더 충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3) 가정의 재정관리에 대한 만족감

가정의 재정 관리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영역에서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M=2.23에서 M=3.32), 재정역할 수행과 갈등해결 방법과 경제 생활 상태에 대한 만족감에서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재정적 역할 수행과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만족감이 더 높았다<표 7>.

그런데, 여성들이 현재의 경제생활 상태에 대해 더욱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는 이들이 본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할 때,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인과의(지금과 같은) 결혼을 선택한다는 여러 자료들을 생각할 때 결혼 이민 여성들의 기본적인 결혼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을 가계를 꾸리는 개인 가계 입장에서 보면, <표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부 모두 재정의사소통의 갈등을 보고하였는데, 재정 역할 수행과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만족도가 더 커서, 남성, 즉 남편 위주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가계 상태와 가정 경제 관리에 대한 인식

1) 가계상태

조사 대상자들의 가계상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월평균 소득은 여성은 약 135만원, 남성은 약 133만원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가계상태에 대하여 여성들은

56.7%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조금만 절약하면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30.0%였지만 남성들은 50.0%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가계 상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가계 미래에 대한 태도

앞으로 1년 후, 5년 후 가계 상태에 대해서는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 긍정적이 기대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1년 후는 남성들이, 5년 후는 여성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녀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년 내의 가계 목표와 5년 내의 가계 목표에서도 남녀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1년 내는 안정된 소득을 가장 큰 목표로, 5년 내는 충분한 저축을 가장 큰 목표로 응답하였다<표 9>.

3) 가정 경제 관리자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여성들은 현재 가정경제는 남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남성은 부부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한 경우도 27.3%였고, 이런 경향은 여성과 남성의 응답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0>.

'가정경제의 주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여성들은 남성(61.3%), 부부 공동(25.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성들은 남성(54.5%), 여성(27.3%)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런 경향은 여성과 남성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27.3%가 여성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여성에 비해 여성들의 응답은 6.5%에 불과하였다.

또한 각자 자신의 부모님 가정의 경우, 여성들은 가정경제 관리 책임자로서 어머니(35.5%), 부부 공동(32.3%)를, 남성은 아버지(60.0%), 어머니(20.0%)라고 응답하였다. 주요 가

<표 9> 가계 미래에 대한 태도

	여성		남성	
	N	(%)	N	(%)
앞으로 1년 후 우리 가계는?				
아주 좋아진다	10	(29.4)	2	(87.5)
좋아진다	22	(64.0)	14	(12.5)
나빠진다	2	(5.9)		
아주 나빠진다				
M(SD)	3.24	(.55)	3.13	(.34)
1년 내의 가계의 가장 큰 경제 목표는?				
안정된 소득	22	(34.4)	10	(45.5)
충분한 저축	14	(21.9)	8	(36.4)
친정과 시댁에 대한 송금	6	(9.4)	2	(9.1)
집 마련 또는 집 개선	12	(18.8)	2	(9.1)
소비생활 향상	8	(12.5)		
기타	2	(3.1)		
앞으로 5년 후 우리 가계는?				
아주 좋아진다	16	(44.4)	4	(28.6)
좋아진다	20	(55.6)	10	(71.4)
나빠진다				
아주 나빠진다				
M(SD)	3.44	(.50)	3.29	(.47)
5년 내의 가계의 가장 큰 경제 목표는?				
안정된 소득	14	(21.9)	6	(27.3)
충분한 저축	22	(34.4)	12	(54.5)
친정과 시댁에 대한 송금	4	(6.3)	2	(9.1)
집 마련 또는 집 개선	10	(15.6)	2	(9.1)
소비생활 향상	10	(15.6)		
기타	4	(6.3)		

Note; 무응답으로 인해 각 문항들의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는 각 문항들 응답에 대한 유효응답의 백분율임.

<표 10> 가정 경제 관리자

	가정경제 관리 책임자				가정경제 문제 결정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N	(%)	N	(%)	N	(%)	N	(%)
여성	10	(16.7)	4	(18.2)	4	(6.5)	6	(27.3)
남성	34	(56.7)	6	(27.3)	38	(61.3)	12	(54.5)
부부공동	10	(16.7)	8	(36.4)	16	(25.8)	2	(9.1)
영역에 따라 나누어	2	(3.3)	2	(9.1)	4	(6.5)	2	(9.1)
부모님	4	(6.7)	2	(9.1)				
					$X^2=14.83$ $p=.005$			
	자신 부모님 가정의 가정경제 관리 책임자				자신 부모님 가정의 가정경제 문제 결정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N	(%)	N	(%)	N	(%)	N	(%)
여성(어머니)	23	(35.5)	4	(20.0)	24	(40.0)	4	(20.0)
남성(아버지)	8	(12.9)	12	(60.0)	10	(16.7)	8	(40.0)
부부공동	20	(32.3)	2	(10.0)	16	(26.7)	4	(20.0)
영역에 따라 나누어	4	(6.5)	2	(10.0)	2	(3.3)	4	(20.0)
그 외 다른 사람	8	(12.9)			8	(13.3)		
	$X^2=22.40$ $p=.008$				$X^2=17.78$ $p=.038$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부인의 가계 파악 정도(1-5점척도)	여성		남성					
	M	(SD)	M	(SD)				
가계 총소득	2.77	(1.01)	3.00	(.69)	$t=1.91$ $p=.06$			
가계 총소비지출	2.71	(1.00)	3.22	(.81)				
가계저축	2.95	(10.4)	3.22	(.65)				
가계 미래 대비	2.67	(1.10)	3.00	(.73)				
전체적 가계파악 정도	2.75	(.94)	3.11	(.54)	$t=1.94$ $p=.06$			
지난 6개월 간 부모님께 드린 돈이 있나요?	N		N					
	(%)		(%)					
드리지 못했다	26	(43.3)	8	(40.0)				
드렸다	34	(56.7)	12	(60.0)				
드렸다면 얼마?(M(SD))	393077원(285023원)		766667원(506921원)		$t=2.39$ $p=.031$			

Note: 무응답으로 인해 각 문항들의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는 각 문항들 응답에 대한 유효응답의 백분율임.

정경제 문제 결정자는 여성의 부모님 가정에서는 어머니(40.0%), 부부 공동(26.7%)로, 남성의 부모님 가정에서는 아버지(40.0%)라고 응답하였다. 이들 부모님 가정의 가정 경제 관리 책임자와 문제 결정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이 보여준 결과는 우리나라 가정문화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여성의 가정은 가정경제에서 여성(어머니)의 역할이 우리나라 가정에서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 가정의 문화를 습득하고 따라가게 되는 경향으로 볼 때, 부부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이것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가정 경제에서 남성의 영향이나 책임이 더 크다고 한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남성들은 여성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 여성의 의사가 가정경제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들이 남성 중심적 가계 운영에 익숙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소외감

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여성들의 가계 상태에 대한 파악 정도는 2.67에서 2.95로서(range 1점-5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고, 남성의 경우는 3.00에서 3.22를 보였다. 이는 남성들에 비해 낮은 점수였는데, 이 중 가계 총 소득과 전체적인 가계 파악 정도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난 6개월 간 부모님께 드린 돈의 액수에 있어서도 양쪽 부모님께 드린 비율은 비슷하지만 금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여성들과 남성들의 이런 경향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가정의 가정 경제 관리가 그다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또한 여성들의 가계에 대한 파악 정도가 낮은 것이나 양쪽 부모님께 드린 돈의 액수의 차이는 여성들이 가계관리에서의 소외감을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정생활 적용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계관리와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비교하여 이들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는 결혼 이민 여성들은 한, 영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접법으로, 남성들은 면접 또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여성 64명(74.4%), 남성 22명(25.6%)로 총 86명이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과 요인분석, one-way ANOVA(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비모수통계인 Mann-Whitney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진 경험을 갖고 있었고, 보다는 경제적 생활에 대한 기대감은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현재 경제생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취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인들의 현 자신의 가계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업욕구가 일반적으로 남성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친정을 원조하기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출가외인의 보수적 태도가 더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농촌사회에서 부인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본국인보다도 여러 가지로 적응이 힘들 외국 여성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느끼게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가계 상황을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고, 가계에 대한 지식이 낮았는데, 이런 상황도 여성의 기대감에서 오는 차이 또는 가정에서 실제로 여성들에게 가계 상황을 오히려 낮게 인식시켜 친정에의 송금을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적 우려와 달리 결혼 이민 여성들의 경제적 태도가 긍정적이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높고, 교육수준이나 직업경험 등은 이들이 주부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들의 가계참여는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남성들은 가계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고, 근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출경향이 비합리적이고, 신용을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현재 경제적 상태를 고려할 때 이는 가정경제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결혼 이민자인 부인들이 이들의 출신 국가

들의 문화적, 경제적 상황과 우리나라와의 차이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에 비해, 결혼 이민 여성들의 경제적 태도가 긍정적이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높고, 교육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주부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 남성인 남편들과 외국 출신의 부인들 사이에서 가계와 관련된 의사소통은 갈등이 많았다. 또한 여성의 가정은 가정경제에서 여성(어머니)의 역할이 우리나라 가정에서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 가정의 문화를 습득하고 따라가게 되는 경향으로 볼 때, 부부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많은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이민자인 부인들에게 가계를 맡기지 않거나 가계문제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상담자들의 상담결과를 참고할 때, 이것은 이들 부인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와 이들의 경제적 관리 능력이나 의사에 대한 가족 내에서의 불신으로 받아들여져 이민자 여성들의 적응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가계참여는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와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증가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또 여러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들은 결혼 이민자인 부인의 사회 적응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다. 또한 이런 적응을 위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행사성이나 홍보성 이유로 전통문화 체험이나 직업교육 등에 치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개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입국과 동시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 일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민자 자신의 적응만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결혼이민자 가정 이 주로 저소득과 농어촌지역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도시나 중, 고소득 가정에 비해 전통적 가치관과 보수적 생활태도를 가진 경향이 있어 결혼이민자인 아내와 며느리의 적응을 강요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또한 결혼이민 여성들의 가계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관찰된다고 한다. 그것은 이들의 한국어 수준이 낮고, 가계관리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금융시스템이나 시장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들이 한국사회와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주부로서 책임과 권리를 나눌 수 있는 배려를 함으로써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부가 주부로서의 경제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살림과 관련된 지출관리가 결국 시어머니의 책임과 권리가 된다면 고부간의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클 것이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 가족원 모두가 상호 적응할 수 있도록 결혼 전과 후에 보다 다수이고, 강자 입장인 한국인 가족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민자인 여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것은 이민자 여성의 한국 가족과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쉽게 할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부의 연령차가 커서 상대적으로 아내들은 신세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고, 가정을 관리하는데 미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안정적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가정적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데는 어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책임과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한, 미 국제 결혼 가정의 연구에서 경제운영이 기본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부부간의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안현정, 2003에서 재인용)는 연구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결혼 이민자 가정의 결혼에는 경제적 문제가 부부 양측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가진 경제적 문제는 가족원의 협력으로 합리적인 가계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과 남편들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한국 가정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의 합리적인 가계관리교육과 재정적소통과 관련된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자신의 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자부심과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남편과 시어머니를 포함하는 가족 교육에서 상호 신뢰를 쌓고 주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교육도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가계관리 태도, 경제생활 태도

참 고 문 헌

- 강복정(2006) 국내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점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 결혼이민자가족지도 실무자 양서워크숍 자료집.
- 김정훈(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3), 165-175
- 모의회, 김재환(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4(4), 887-900
- 박현정(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여성결혼이민자 실태보고,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3-34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 정책방안
-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정(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53-172
- 양철호 등 5인(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이규삼(1999)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1-44.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 이윤애(2004) 전북지역외국인 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윤애(2004). 전북지역외국인 여성 정착지원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6.
- 정영덕(2004)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옥희, 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최금해(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Mirels, H. & Gareet, J.(1971). The protestant ethic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 40-44
- Waddell, F.E. (1993). *Financial Portfolio; Your Financial Map*.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2002. 10.28. 보도자료; 광주전남여성 실태조사
- 국민일보 2007.6.16 “농어민 장가보내기 유감” 19면
- 서울신문. 2007.4.16 “국제결혼 걸맞는 다문화 인식 필요하다” 31면

(2007. 8. 20 접수; 2007. 11. 10 채택)